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만든다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예방국에 전담팀...직급 상향해 배정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업무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전담팀을 만든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 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 관리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담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5급 2명, 6급 3명 등 5명이다. 법무부는 필요 인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해 예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 예방기획과에서 소년범죄예방 정책

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축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와 관련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확

대할 방침이다.

또 소년수형자 가석방 등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을 통일하기 위해 수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15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받는다.

김재환기자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된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18만원 정도다.

보험료는 직·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수치는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인 경우 혼합가구로 분류된다. 월 보험료 합계가 14만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택치료비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파스르비드 등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코로나19 격리 재정부담 제도 개편

*7월 15일, 입원·격리 통지시부터 적용

| 생활지원비 | 가구원 수 | 기준액 | 지원액 |
|-------|-----------|---------|---------|
| 1인 | 2,2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80,000 | 114,816 | 103,218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7월 11일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이슬비기자

“6발 남았다”尹테러 의심글 작성한 40대 무직 남성 ‘자수’

“서울 갈 것, 아직 6발 남았다” 온라인 글 신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테러 의심 글을 작성해 올린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수한 40대 남성이 형사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초반 A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한 사이트 주시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암시 글 3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서울 관광하러 갈 것인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 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게시글에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댓글을 달자 10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전날(10일) 오후 1시48분께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는 뉴스를 보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 상태이며 경찰 조

사에서 “장난으로 올린 글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충기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시50분께 “온라인에 윤 대통령을 테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목격됐다”는 112신고가 경찰청으로 접수됐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강릉경찰서는 검찰에 사용자 아이디어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게시글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청구에 내사종결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게시글 확인 후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관련 관례 등을 검토 후 A씨를 적의 조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언급한 ‘6발’은 지난 5월말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분실해 논란이 된 실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A씨의 게시글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에 사용된 ‘산탄총’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기자



완도해경, 여객선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여름철 성수기 여객선 이용객 증가 예상 및 여객선 사고 농무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완도항VT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각 여객선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정인화 광양시장과 대화의 장 열어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금일 정인화 광양시장과 대화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담양경찰, 103세 초고령 치매노인 극적 구조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6일 담양읍 가산리 야산에 103세 치매 노인을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보성경찰, 보행자 안전 위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지난 8일 보성군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주전남지방방위청, 송의중 진로체험행사 실시

광주전남지방방위청은 지난 6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송의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최이슬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진행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6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키오스크 등 정보 접근 차별 철폐 촉구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11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들은 키오스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11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들은 키오스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무안 도리포항 정박 준설선서 기름 유출

무안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새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6시 47분께 무안군 도리포항 인근에 정박 중이던 1286t급 준설선에서 선박유 등이 유출됐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경비함정 2척, 방제정 2척 등을 투입해 사고 선박 주변 해역에 100여m 길이의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유류차체 등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선체 바닥에 구멍이 나 침수

가 발생, 기울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방제 작업을 마치는 대로,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나 여기 평일 알바생 이야” 편의점 금고 텀 20대 남성...경찰 수사

도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한 남성이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편의점 한 아르바이트생 A씨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남성은 같은 날 정오에 편의점을 찾아 A씨에게 본인을 평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나를 모르겠느냐. 1시간 동안 이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한다”며 A씨와 함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의심을 피했다.

실제 A씨는 해당 남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수상한 김새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A씨가 오후 1시에 창고에 틀어박힌 사이 금고를 열어 현금 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뒤늦게 편의점 금고에 현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의점과 주변 폐쇄회로 CCTV(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해당 남성을 쫓고 있다.

기동취재본부